

# 약물중독·만성알콜·뇌질환등 원인감별 통해 상당한 치료효과 기대



손영호 <연세의대 교수>

전세계적으로 의학의 발달과 함께 많은 질병들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평균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출산율의 감소와 함께 연령별 인구구조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노인인구의 획기적인 증가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미 서구의 여러 선진국들에서는 65세이상 인구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15%를 초과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아직은 5% 정도에 불과하나 향후 급진적으로 늘어나 약 15~20년후가 되면 1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보장 제도의 근본이 되는 노인복지 및 후생문제와 맞물려 과거에는 그리 큰 관심을 끌지 못하던 여러가지 노인성질환들이 새로운 차원, 즉 공중보건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정부의 정책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이에 대한 관심도 점차 고조되어 가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 더욱이 일전에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이 자신이 노인성치매 환자라고 방송에서 발표하여 큰 화제를 일으킨 이후에 노인성질환, 특히 치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늘어난 것을 느끼게 된다.

일종의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는 치매와는 다른 경우가 된다. 치매란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어떤 질병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두통이나 소화불량과 같이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증상에 불과하다. 즉, 어떤 사람에 있어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저하가 그사람의 일상생활이

이름을 따서 알츠하이머씨병 혹은 알츠하이머씨 치매라고 부르기도 한다. 노인성치매란 이름과 같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데 서구의 통계에 의하면 65세이상 인구의 약 3~5% 정도에서 이 질환이 발견되며 80세가 되면 이러한 비율은 1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있다고 의심하기는 매우 어렵게 된다. 때로는 이와같은 인지장애 증상외에 사소한 성격의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예전과는 달리 성격이 급해지고 화를 잘 낸 다던지 쉽게 낄을 의심하는 등의 증상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병이 점차 진행하면서 이러한 증상들의 정도도 심해지게 되고 일정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더이상 이전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어렵게 되며,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도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시기에는 비교적 쉽게 분명히 이상이 있다는 것을 주위에서 알 수가 있게 되며, 이러한 이상을 병

## 노인성 치매 진단



◇우리가 노인하면 연상되는 모습의 대부분이 신경계의 변화로 온다.

나 사회생활에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심할때 이를 병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치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때 치매는 여러가지 급성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식혼돈 상태와는 구별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지능이 낮은 정신지체와도 구별되어야 한다.

### 노인성 치매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치매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 인지장애 파악후 CT, MRI등 뇌촬영으로 진단검사 마무리

성치매의 주된 병변은 대뇌의 퇴행성변화이며 쉬운 말로 하자면 대뇌가 다른 사람들 보다 빨리 그리고 심하게 늙는다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정상적인 노화에서도 뇌세포수의 감소와 함께 뇌의 위축이 나타나게 되나, 이 질환에서는 그 정도가 정상 노인에 비해 훨씬

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치매가 있다는 것을 진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증상들이 점차 심해지면 스스로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고, 외출해서 집을 찾아오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더욱 심해지면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며 음식물의 섭취나 배설 등 기본적인 행동에도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속을 관찰하면 노인성치매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간주하는 정도로 진단적 검사를 마무리 하게 된다. 노인성 치매외에 치매의 증상을 보일 수 있는 질환들로는 우선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노인성치매 환자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다발성 뇌졸중에 의한 치매를 들 수 있으며, 그외에도 만성알콜 혹은 약물중독, 신장 혹은 간질환 등의 대사성질환, 갑상선 혹은 부갑상선질환을 포함하는 내분비질환, 뇌종양, 뇌출혈, 뇌수종 등의 다양한 뇌질환, 뇌농양 혹은 신경매독 등의 감염성질환을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특히 노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우울증도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러한 원인들의 감별을 위해, 여러가지 다양한 임상병리검사가 필요하며, 또한 CT나 MRI와 같은 뇌촬영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노인성치매의 경우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효과가 있는 치료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위에 나열한 다른 여러가지 원인에 의한 치매증상은 그 원인을 치료함으로써 완치 혹은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인에 의한 치매를 '치료가능한 치매'로 따로 분류하기도 한다.

### 노인성 치매의 진단은?

치매의 진단은 우선 '환자가 실제 일상생활에 장애가 되는 정도의 인지장애가 있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평가는 세밀한 병력의 파악을 필요로 하고, 아울러 간단한 인지기능 검사를 통해 개략적인 인지기능 장애 정도를 평가하게 된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치매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환자들에게는 좀 더 정밀한 지능검사 및 심리검사를 시행하여, 좀 더 정확하게 인지장애의 정도를 파악하고 여러가지 뇌기능 중에서 어떠한 기능에 심한 장애가 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이와같은 검사들을 통해 치매에 합당한 결과가 나오면, 다음 단계로 왜 이 환자에서 치매의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 원인에 대한 검사

건강이란 어떤 한번의 비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부단없는 노력이 필요로 한다. -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의 철저한 조절, 식생활의 개선, 규칙적인 운동, 음주 및 흡연 습관의 개선과 아울러 긍정적인 사고와 생활자세를 통해 인생의 황혼기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아울러 치매와 같은 노인병의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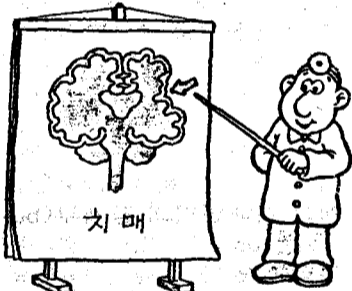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의 하나로서, 치매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질환은 매우 많다.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을 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다발성 뇌졸중에 의한 치매와 함께 노인성치매를 들 수 있다(서구의 여러나라에서는 노인성치매가 전체 치매 환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인성치매란 이름 그대로 풀이하자면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치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나 하나의 특정한 질환을 일컫는 용어로서, 20세기 초 알츠하이머란 병리학자에 의해 처음 기술되어 그의

심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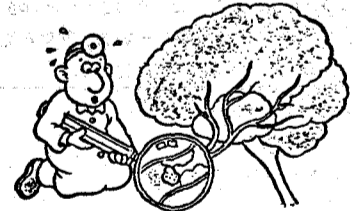
### 노인성치매의 초기증상은?

노인성치매는 대개 서서히 시작되며 따라서 정확히 언제부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아주 초기에는 물론 정상적인 노화에 따르는健忘증과 쉽게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예를 들자면 평소에는 비교적 잘 기억을 하면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매일 반복적으로 하던 일들을 간혹 잊어버린다면 인지하는 단순한 증상으로 시작되며 물론 이 시기에 환자에서 병이



알츠하이머병

원인은 뚜렷하지 않으나 뇌가 심하게 위축되어 있다.



혈관성 치매

여러개의 뇌혈관이 경색되어 발생

### 치매란 무엇인가?

최근들어 주위의 나이든 분들로부터 '자신이 예전에 비해健忘증이 심해졌는데, 이것이 치매의 시초가 아니냐' 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다. 실제로 인간의 뇌는 30세가 넘으면서 서서히 세포의 수가 감소되며 그에 따라 위축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뇌의 기능도 나이를 먹어 가면서 점차 감소하게 되며, 예전에 비해 기억력이나 기타 여러가지 인지기능들, 즉 계산력, 사고력, 판단력 등이 기능저하를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나이가 들에 따라健忘증이, 심해지는 것은